



산업별 주요 이슈 분석

소비재·헬스케어 & 금융

Industry Issue Report (2022년 11월 1주)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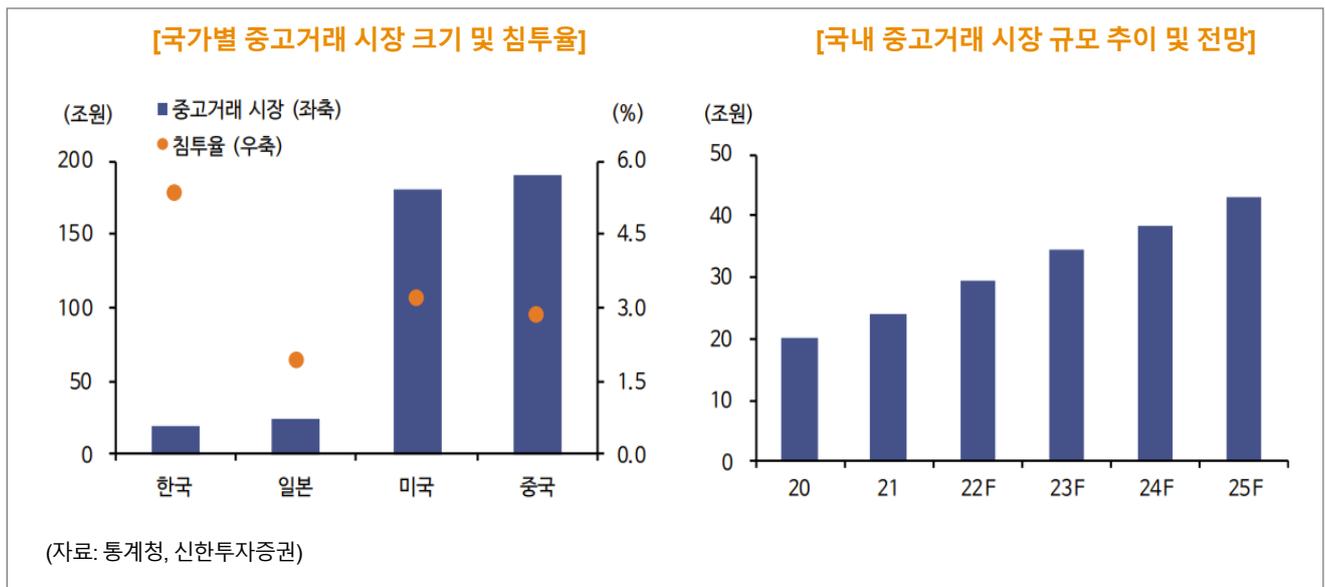
삼일회계법인

고물가와 친환경 소비 추구로 중고 거래 시장 성장세

- 지속되는 고물가 및 친환경 추구 소비형태로 근래 중고 물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주요 품목으로는 명품, 골프용품 등이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됨.
- 중고거래 주요 연령대는 20-30 대로, '21년 8월 발표 자료 기준 중고거래 규모에서 61%를 차지했으며,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08년 4조원 수준에서 '21년 24조원 규모로 총 6배 증가함.
- 롯데쇼핑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지분 90%를 유전자산운용과 공동 인수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투자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820억원을 투자한 바 있음. 11번가는 중고명품전문 플랫폼 '구구스'와 협업해 라이브 방송 판매를 진행했음.
- 번개장터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9월까지 골프 중고물품 거래액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음.
- 롯데마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중고 자전거를 수거, 수리, 재생해 상품화한 재생자전거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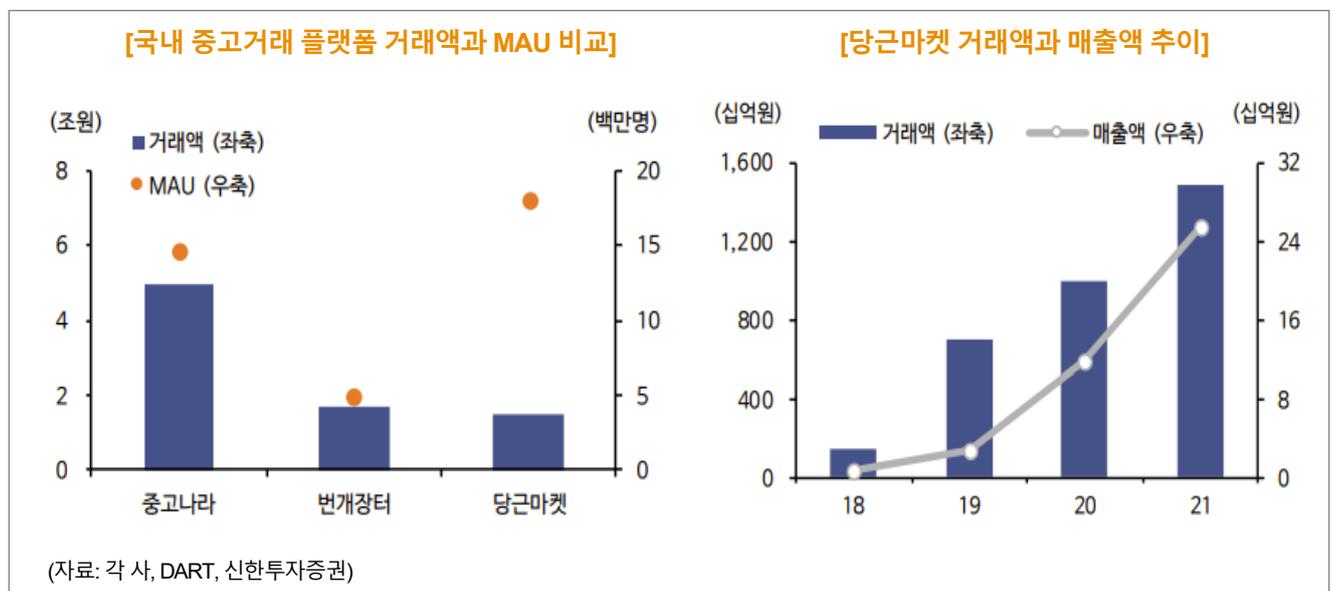
삼일 PwC 경영연구원 Comment

- **국내 중고거래(중고차 제외) 시장 규모는 '20년 기준 약 20조원으로 '25년 약 43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1) 고물가로 인한 절약 및 합리적 소비, 2) 쓰던 물건을 버려서 쓰레기를 늘리지 않겠다는 친환경 소비, 3) COVID-19로 인한 리커머스 관심 증대 등으로 근래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임
- **한국 중고거래 시장의 경우, 일본(2.5조엔), 중국(1조위안), 미국(1,400억달러) 대비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전체 소매 시장 내 비중은 5.3%로 일본(1.7%), 중국(2.8%), 미국(3.2%) 대비 침투율이 높은 수준임.** 국내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기반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타 국가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과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 침투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 3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가 있음. 누적 가입자 수는 당근마켓 2,220만명, 중고나라 2,460만명, 번개장터 1,650만명으로, 3사 합산 거래액은 약 7조원 수준으로 추정**

- > 상기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의 투자 유치 또한 근래 활성화되었음. 당근마켓의 경우 '21년 1,800억원 규모 Series D 투자를 유치했고, 중고나라는 '21년 롯데쇼핑이 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93.9%를 공동인수했으며, 번개장터는 '22년 82억 규모 Series D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 특히, 당근마켓은 대면방식의 직거래 구조를 구축하고, 사명처럼 '당신 근처의' 로컬 커뮤니티 서비스로의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밸류(기업가치 약 3조원)를 인정받은 바 있음. 거래액 기준으로는 당근마켓이 중고나라 대비 열위하지만, MAU(Monthly Active Users, 월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음. 중고나라의 경우 고유 어플리케이션 대비 네이버 카페를 통한 거래 의존도가 높다(거래비중 3:7)는 점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가치는 약 1,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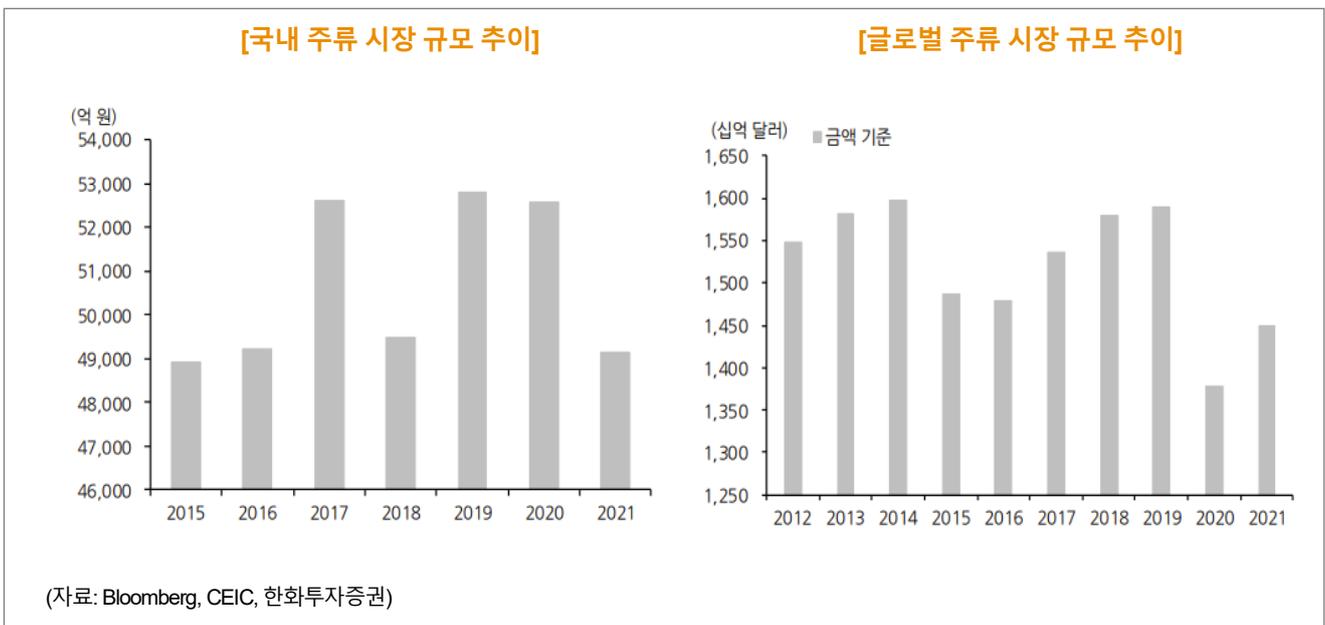
소비재

소비자 기호 다양화로 '원소주' 돌풍 등 주류 시장 변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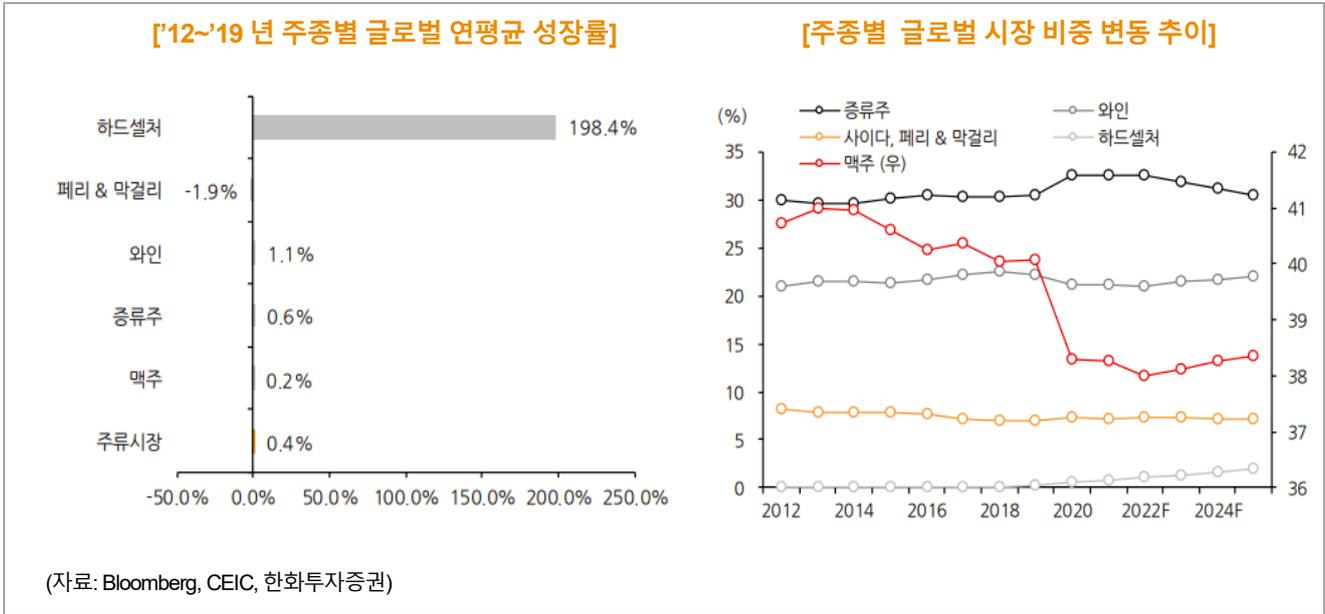
- 최근 한국 소주 시장에서 기존의 희석식 소주보다 높은 가격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22년 국내 증류식 소주 시장 규모는 약 700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11년 100 억원 '21년 450 억원 대비 대폭 성장함.
- 특히, 가수 박재범 대표가 운영하는 주류 기업 원스피리츠가 '22년 2월 출시한 원소주가 가격이 기존 소주 대비 10 배 수준(1 만 4,900 원, 374ml, 알코올도수 22 도)임에도 품절대란을 일으켰음. GS25 와의 유통 계약으로 편의점 오픈런 등 전국적인 이슈몰이가 이루어지고, 가심비 추구와 SNS 인증 심리 등이 촉진제가 되면서 원소주의 총 판매량은 현재 170 만병 이상, 매출은 100 억원을 초과 달성함.
- 이에 한국 소주 시장 1 위 하이트진로는 '22년 8 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진로 1924 헤리티지'를 출시했으며(10 만원, 700ml, 알콜도수 30 도), 롯데칠성음료는 9 월 기존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소량 첨가하여 증류식 소주 맛을 내는 무설탕 소주 '새로'를 출시함.(1,096 원, 360ml, 알코올도수 16 도)

삼일 PwC 경영연구원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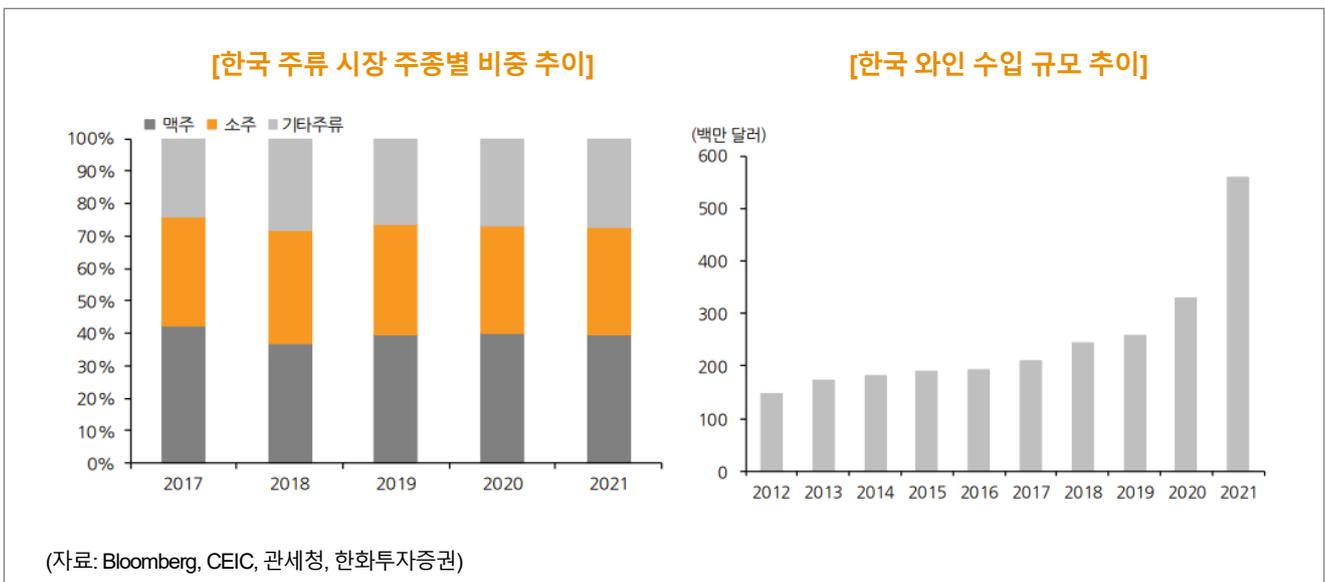
- '21년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 약 4.9 조원 수준임. '15~'21년 국내 주류시장 CAGR은 금액 기준 +0.1%, 출고량 기준 -2.4%로 성장이 정체된 시장. 다만, COVID-19로 인한 기저효과로 '22년 국내 주류 시장은 +1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성장률 피크아웃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3년 +6.2%, '24년 +4.4%)
- 글로벌 주류 시장 규모 또한 '12~'19년 금액 기준 CAGR +0.4%, 볼륨 기준 +0.6% 성장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임. '19~'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금액 기준 -4.5%, 볼륨 기준 -4.1%를 기록한 바 있음. 기존 주종 중에서는 와인이 금액 기준 CAGR +1.1%를 기록해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특징적으로는, 탄산수(Seltzer)에 알코올을 섞고 과일향을 첨가한 술인 '하드셀처'가 당 함량과 칼로리가 낮다(맥주의 절반)는 점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짐. 가볍고 건강한 술에 대한 미국 20-30 대의 호응으로 '16 년 출시된 화이트 클로는 '19 년 미국 내 15 억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버드와이저 매출을 추월한 바 있음. 그랜드브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하드셀처 시장은 CAGR 16%로 성장해 '27 년 약 16.1 조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



- 한국 주류 시장 구성비는 맥주 39.8%, 소주 32.9%로 맥주와 소주의 합산 비중이 절대적임. 다만, 그 비중이 '17 년 75.8%에서 '21 년 72.6%로 축소된 바 있음. 소비자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탁주, 청주, 과일주 등의 기타 주류 비중은 '17 년 24.2%에서 '21 년 27.4%까지 확대되었고, 와인 수입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맥주 및 소주의 신규 브랜드 출시가 지속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에서는 16 년만의 소주 신제품 ‘새로’를 ’22 년 9 월 출시했음. ‘새로’는 기존 소주와 다르게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가 소주로, 증류식 소주를 소량 첨가해 고유의 향을 더했으며, 출시 50 일만에 150 만병이 판매됨. 롯데칠성은 또한 ’22 년 10 월 28 년만의 새 청주 브랜드 ‘백화’를 출시했으며, 수제맥주 인기 흐름에 편승하여 GS25 에서 1 주만에 20 만캔이 완판된 버터맥주 4 종 OEM 에도 가세한 바 있음
- 실제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소비자 기호 다양화뿐만 아니라 ’21 년 수제맥주 주세 부담 축소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류 위탁생산 허용으로 공급증가까지 더해지면서 ’21 년 약 1,635 억원 규모로 확대됨. 수제맥주의 인기는 국내에 국한된 트렌드는 아님. 미국의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은 ’12 년 10.2%에서 ’19 년 25.2%로 확대되었고, 유럽의 경우 ’12 년 3.8%에서 ’20 년 6.4%로 확대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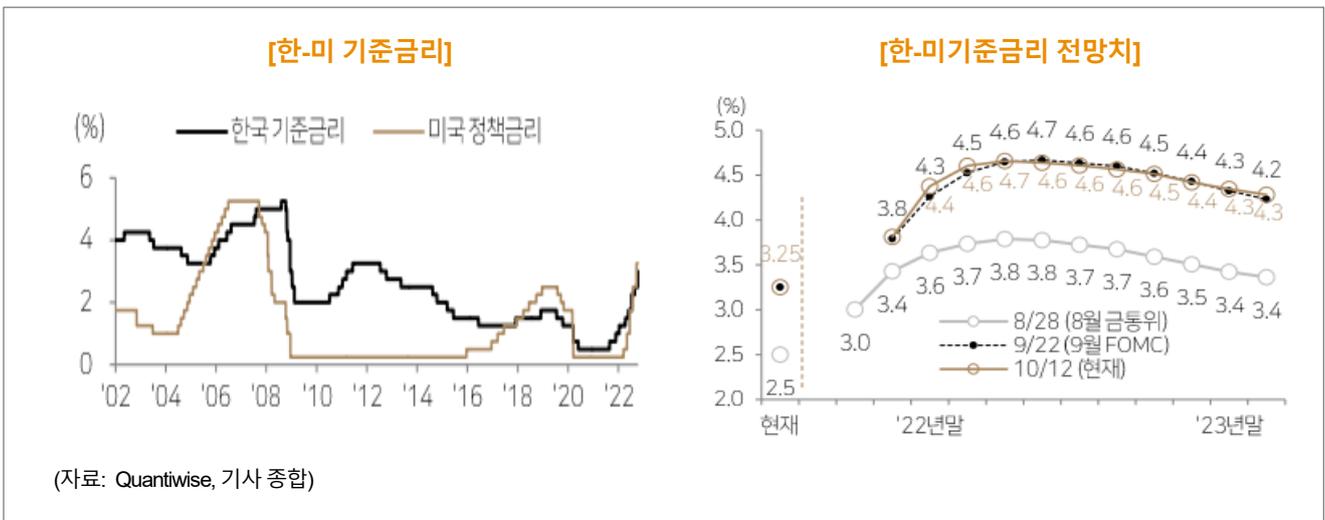
금융

기준금리, 10 년만의 3% 시대 도래

- 10 월 12 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림. 이로써 10 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도래
- 이번 금리 인상은 한은 역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며, 금번 빅스텝은 1400 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확인으로 풀이. 환율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직후 단번에 1400 원을 넘어선 뒤 가라앉지 않고 있었음. 당시 미국 연방기준금리 목표범위(3.0~3.25%) 상단 기준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로 벌어졌으며, 한은은 이번에 역전 폭이 0.25%포인트로 줄어들어 따라 환율이 다소 안정되기를 기대
- 다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다음달 초에 다시 커질 공산이 큼.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다음달 1~2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포인트로 확대. 이에 따라 11 월 24 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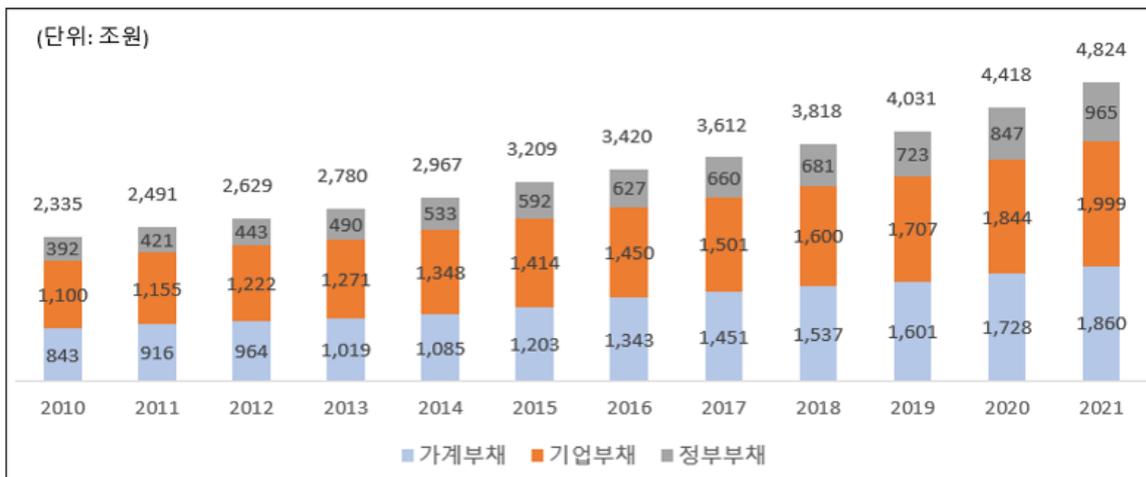
삼일 PwC 경영연구원 Comment

- 한국은행은 고물가 지속·연준 긴축기조 강화·원화가치 절하 폭 확대 등의 이유로 10 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 경제전망 관련해서는, '22 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6%에 부합하나, '23 년은 기존 전망치(2.1%) 하회. 물가상승률은 '22 년은 기존 전망 5.2%에 부합하고, '23 년은 기존 3.7% 유지. 다만 물가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산유국 감산 가능성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큼
- 금통위 이후에 진행된 한은 총재 기자회견 내용은 ① 시장의 Terminal rate 3.5% 기대 관련, 다수 금통위원들과 같은 견해 ② 당분간 인상 기조 유지, '당분간'은 3 개월 가량을 의미 ③ 한국 경제구조 특성(가계부채 규모) 감안 시, 여타국의 75bp 인상과 한국의 50bp 인상 효과는 비슷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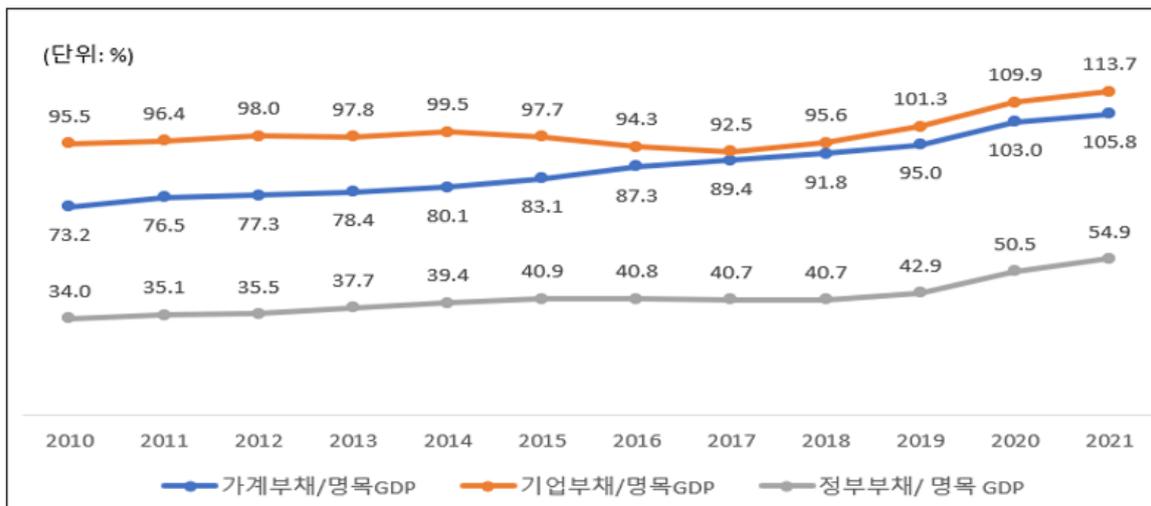


- **금주 중반 미국 FOMC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이 다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11월 24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는 50bp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안정 vs 경기변동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운 상황. 금번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금융안정을 측정함에 있어 가계부채가 중요한 고려 요소. 정부 및 기업부채가 많은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금리인상 폭이 경제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진국의 75bp 인상과 한국의 50bp 인상이 비슷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의 Terminal rate가 4.7%로 예상되는 데 반해, 한국의 Terminal rate는 3.8%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



[명목 GDP 대비 부채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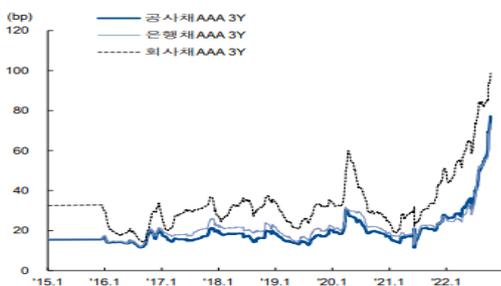
레고랜드 發 자금시장 경색, 신용스프레드 급증

- 2022년 9월 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자금경색 우려가 심화
- 이 사건으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의 불신이 커졌고 PF 시장의 리스크 확대는 물론,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급증
- 강원도는 회생 신청을 통해 레고랜드 개발에서 발생한 부채 수백억원을 줄이려 했으나, 금번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섬. 또한 정부는 23일 채권시장에 '50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 작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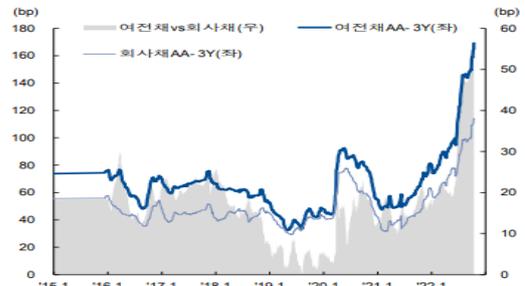
삼일 PwC 경영연구원 Comment

-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는 지난 2020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강원도의 보증으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
- 이에 따라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2년 9월 28일 보증의무 이행 대신 법원에 GJC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
- 실제로 10월 17일 한국전력공사(AAA)가 연 5.75%와 연 5.9% 금리로 4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1200억 원이 유찰됐고, 한국도로공사(AAA)도 10월 17일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으나 전액 유찰. 특히 대규모 건설·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대출 기법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됐는데, 이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PF의 차환 발행 실패로 이어지기도 함

[AAA 등급 신용 스프레드 추이]



[AA-등급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레고랜드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경색에 정부는 10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 이에 따르면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으로 운영
-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의 가용재원인 1조 6000억 원을 10월 24일부터 투입해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에 나서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규모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늘릴 예정. 또한 한국증권금융 재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부동산 PF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은 10조 원 규모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조치 세부 내용(22.10.23 발표)]

지원책	대상	규모	지원주체/재원
1 채안펀드 재가동	회사채(AA- 이상), CP·전단채(A1), PF-ABCP(A1), 여전채(A+ 이상) 등	20조원	83개 금융기관
2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발행한 CP 포함	8조원→16조원	산은, 기은, 신보
2-1) 회사채·CP 추가매입여력 확대	①일반 기업(금융회사 제외)이 발행한 회사채 (대기업 BBB/중견기업 BB/중소기업 B등급 이상) ②(CP 전단채) [현재] 일반 기업(금융회사 제외)이 발행한 CP 전단채 차환물(A3등급 이상) → [확대] 금융회사 발행 CP 등 포함	5.5조원→10조원	산은, 기은
2-2) 신보 P-CBO 신규발행여력 확대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건설사·여전사 지원 추진 * 신용등급: BB- 이상	2.6조원 →5.6조원	신보
3 증권사 유동성 지원	PF/ABCP 차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한 증권사 특히, RP거래① 및 증권담보대출② 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보다 다양하게 허용함으로써, 지원 저변 확대 예정 ① 국공채·통안채·은행채 → (추가)회사채(AA이상) 허용 (필요시 규모 확대) ② RP 대상채권·상장주식 → (추가)회사채(AA이상), CP(A1이상), ABCP(예금형), 증금채 허용	3조원	한국증권금융
4 PF 사업자 보증 지원	부동산 PF 사업 중 우량 사업임에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사업 중 '브릿지론' → 본 PF 전환되어 자금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본PF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10조원	HUG, 주금공
5 지자체 보증 ABCP 지급보증의무 이행			
6 적격담보대상 증권 범위 확대(예정)	국채 이외 공사채, 은행채 등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